



한희원 작 '내 마음속의 생'

2~8일 '한희원 개인전' 가수 김원중 축하공연도

▲어둠보다 짙은 파랑=색 하나 하나가 그만의 소리를 낸다면, 서양화가 한희원의 그림 속 파랑에서는 남 몰래 흐느끼는 눈물 소리마저 들릴 것 같다. 한희원씨가 2~8일 광주 무등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에 맞춰, 노래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그림들을 모아 선보인다.

푸른빛이 감도는 밤하늘, 어둠이 쌓인 마을 풍경, 나뭇잎의 움직임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바람 등을 소재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사한다.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푸른 밤하늘과 어둠이 빛나는 아름다운 창문의 불빛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모든 색은 파랑과 노랑의 두 극 사이에 든다"고 했다. 노랑으로 대표되는 빛과 아침의 이미지, 파랑으로 여겨지는 어둠과 저녁의 경계에서 모든 색깔이 생겨났다고 여긴 것이다. 깊어가는 겨울, '노랑과 파랑의 두 극'을 만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색채의 마술 만끽하세요

을 대비시켜 고즈넉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바람을 따라 길을 걷다"는 언덕, 사람, 고목이 바람 속에서 하나가 된 듯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면을 형상화했고, '양립동의 겨울'은 눈이 쌓인 오래된 골목 풍경을 잔잔하게 펼쳐 놓았다.

공연 무대 그림전 단계, 가수의 뒷모습을 담은 '방랑자의 노래'와 공연장을 형상화한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의 작품도 눈에 띈다.

또 2일 오후 7시에는 가수 김원중씨, 국악인 윤진철씨의 축하 공연이

결들어진 오프닝 행사가 열린다.

그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12회 개인전을 가졌다. 오지호 미술상 기념전, 한국현대미술의 투영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고, '새벽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34-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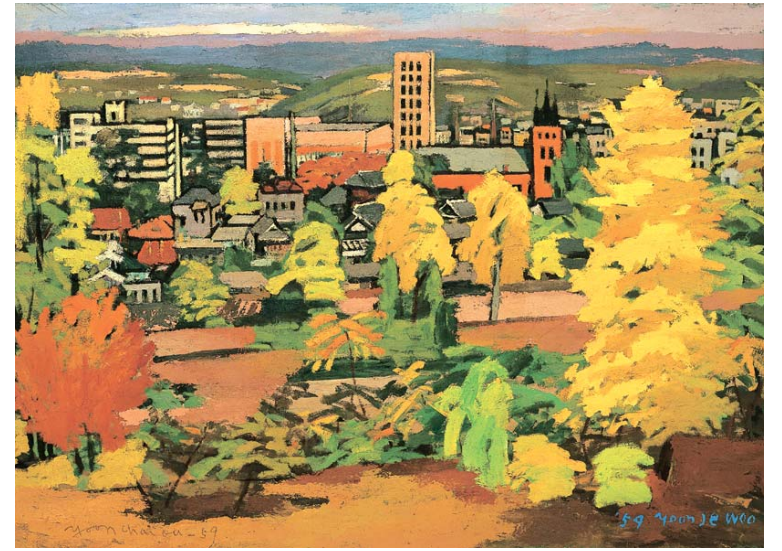
▲혼을 담은 노랑=강진 출신 서양화가 고 윤재우(1917~2005년)씨의 노랑에 대해 오지호 화백은 "투명하고 찬란한 조국의 색채"라고 찬했다.

그는 조선대 미술과 교수 등을 지냈으나, 일찍 서울로 떠나 그동안 이 지역에는 작품세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다. 그의 유족이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 75점의 작품을 기증했고, 미술관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년 2월13일까지 '혼을 담은 색의 화가 윤재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렬한 노랑 등 밝은 원색으로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파랑, 녹색, 초록 등과 대비시켜 더욱 화려하게 느껴지는 노랑색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를 무대로 한국적 인상주의를 실현시켰던 초기 작품과 사실적인 필치로 도심 풍경을 화폭에 담은 중



윤재우 작 '시민회관이 보이는 풍경'

내년 2월 13일까지 '윤재우전' 한국인 삶 화폭에

기 작품, 화려한 색채로 남도의 풍경을 담은 후기 작품 등 시기별 작품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

'해바라기가 있는 사막'은 노랑색과 회색, 청색을 대비시켜 쓸쓸한 골목길을 표현했고, '시민회관이 보이는 풍경'은 노랑계 물든 은행잎을 배경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을 묘사했다.

서울과 여수 등지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오지호, 김보현 등과 조선대 교수 전람회 등을 갖는 등 수십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4차례 특선, 국민훈장 동백장, 자랑스런 해남 윤씨상 등을 받았다. 문의 062-613-7100.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현대미술과 인문학' 열 한 번째 강좌

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씨

'빛으로 그린 그림' 주제로
3일 시립미술관 금남로관



'소나무'

한 폭의 수목화 같은 소나무 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서울예술대학 교수)씨가 오는 3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금남로본관에서 '빛으로 그린 그림'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시립미술관·광주일보 공동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열 한 번째 강좌에서 배씨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사진 예술의 아름다움을 강의한다.

강의를 통해 배씨는 "과거 동해 양양해변을 따라 내려오면서 마치 심마니가 산삼을 발견한 것처럼 소나무를 보았고, 소나무가 반도 등뼈인 태백산맥의 피와 살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소개한다.

또 자신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진작가 에드워드 웨스턴, 해리 캘러한 등의 작품도 함께 보여준다.

그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

학원 공예도안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29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에 참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200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적 팝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 '금강산 소나무'를 1만5000파운드(한화 약 2,820만원 가량)에 구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문의 062-613-5382.

/오광특기자 kroh@

이난영 '목포의 눈물' 다시 불러본다

도립국악단 '삼학도 연가' 4일 목포문화센터

세 마리 학이 내려 앉아 섬을 이뤘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삼학도는 목포의 대표 상징물이다. 삼학도의 전설과 목포가 탄생시킨 명가수 이난영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2010년 정기공연 작품으로 '삼학도 연가'를 공연한다. 4일 오후5시 목포시문화체육센터.

창무극으로 꾸며지는 1부 '삼학도 사랑일레라'는 삼학도 설화와 남도 뱃사람들의 소리·춤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설화속 윤도령과 세 처녀들의 사랑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내 뱃사람들의 삶을 노래한 '남도 뱃사람들 소리', '갯마을 아나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2부에서 공연되는 신과 국악극 '목포의 눈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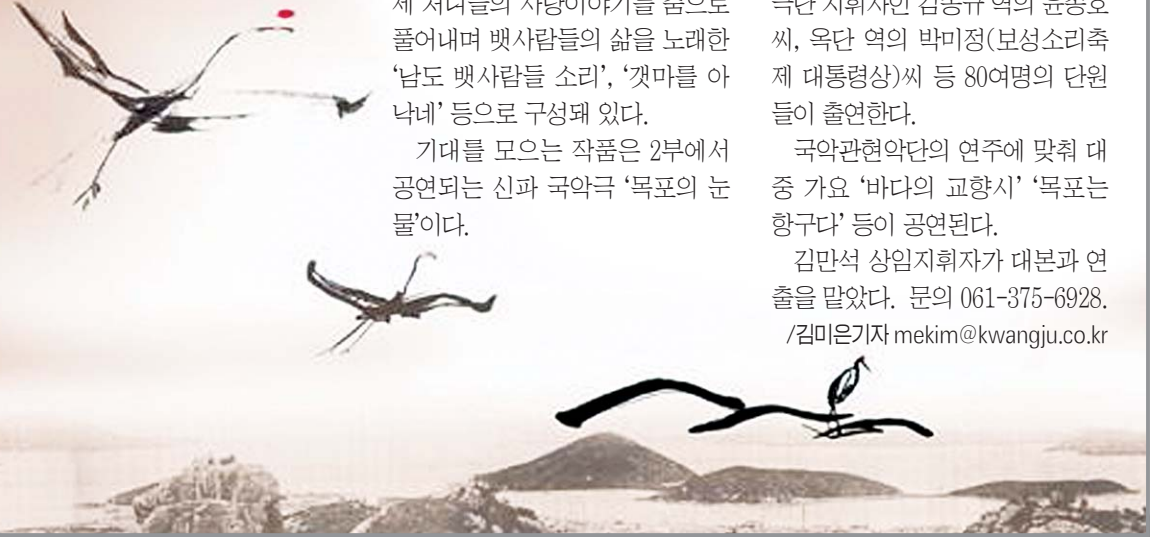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악 대중화를 위해 기존 창작극과 신과극을 접목시킨 '목포의 눈물'은 목포 권변가에서 소리를 배운 후 가수로 성공, 가요 '목포의 눈물' 등을 통해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졌던 이난영과 조선악극단의 공연 모습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박춘맹씨가 변사역을 맡아 극을 이끌며 주인공 이난영은 홍은진씨가 맡았다. 그밖에 조선악극단 지휘자인 김승규 역의 윤종호씨, 옥단 역의 박미정(보성소리축제 대령상)씨 등 80여명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대중 가요 '바다의 교향시' '목포는 항구다' 등이 공연된다.

김만석 상임지휘자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이사회 15명 구성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행동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광주문화재단이 지난달 30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문화재단설립 준비단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이사장인 강은태 시장과 노성대 전 MBC사장 등 15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노성대 전 MBC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윤장현 YMCA 이사장, 김포전 전 광주공예예술재단 이사장 등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인사 1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당연직 포함, 모두 1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아래 사무처장과 문화정책실, 문화관광실, 경영

관리실, 문화예술사업실, 시설운영실 등 2실 3팀으로 운영된다. 직원은 모두 25명이며 12월 중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500억원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단의 최초 출연금은 82억원이며 연간 운영비로 30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단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며 기금 배분 등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게 된다. 또 광주국제공연예술제와 정음예술제, 광주국제아트페어 등 문화행사로 주관한다.

장기 계획으로 (가칭) 문화회관 발족을 추진한다. 광주시립예술단 운영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송년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의**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영화와 함께!!**

<p>상무점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p> <p>1관 렛미인 (15세) / 더콘서트(전체)</p> <p>2관 더콘서트(전체) / 두여자 (18세)</p> <p>3관 불랑남녀 (15세) / 이층의악당 (15세)</p> <p>4관 이층의 악당 (15세)</p> <p>5관 언스토퍼블 (12세) / 소우 (18세)</p> <p>6관 듀데이트 (18세)</p> <p>7관 스카이라인 (12세)</p> <p>8관 소설네트워크 (15세) / 초능력자 (15세)</p> <p>9관 부당거래 (18세)</p> <p>10관 초능력자 (15세)</p>	<p>1관 스카이라인 (15세)</p> <p>2관 이층의악당 (15세)</p> <p>3관 초능력자 (15세)</p> <p>4관 소설네트워크 (15세) / 소우 (18세)</p> <p>5관 페스티발 (18세) / 두여자 (18세)</p> <p>6관 렛미인 (15세) / 불랑남녀 (15세)</p> <p>7관 언스토퍼블 (12세) / 부당거래 (18세)</p> <p>8관 듀데이트 (18세)</p> <p>9관 더콘서트 (전체)</p> <p>10관 초능력자 (15세) / 이층의악당 (15세)</p>	<p>M관 위리어스 웨이 (15세) 최고급관</p> <p>2관 짜짜한 로맨스 (18세)</p> <p>3관 초능력자 (15세)</p> <p>4관 소설네트워크 (15세) / 부당거래 (18세)</p> <p>5관 짜짜한 로맨스 (18세)</p> <p>6관 스위치 (15세) / 라스트 엑소시즘 (15세)</p> <p>7관 이층의 악당 (15세)</p> <p>8관 스카이라인 (12세)</p> <p>9관 위리어스 웨이 (15세)</p>	<p>1관 위리어스 웨이 (15세)</p> <p>2관 스카이라인 (12세)</p> <p>3관 듀데이트 (18세) / 소설네트워크 (15세)</p> <p>4관 스위치 (15세)</p> <p>5관 이층의악당 (15세) / 부당거래 (18세)</p> <p>6관 초능력자 (15세) / 라스트 엑소시즘 (15세)</p> <p>7관 짜짜한 로맨스 (18세)</p>
--	--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련연약국사거리 **1544-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상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